

# C7009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 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E029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16.05.09
운용기간	2020.01.01 ~ 2020.03.31	존속기간	취항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펀드는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추구합니다.</li> </ul>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네비게이터 주식재간접형	자산 총액 (A)	3,945	3,054	-22.58
	부채 총액 (B)	2	1	-24.32
	순자산총액 (C=A-B)	3,943	3,053	-22.58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3,804	3,730	-1.96
	기준가격 주 (E=C/D×1000)	1,036.47	818.48	-21.03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미국과 이란 사이 중동 불안감 고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확산 등 근년에는 연초부터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동 불안감은 빠르게 해소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에 이어 한국, 유럽, 미국까지 크게 확산되면서 투자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켰으며, 이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2월 하순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3월 초 미국 연준은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나, 검증을 수 없이 커져버린 코로나 불안감으로 인해 미국 증시의 추가 급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월 중순까지 글로벌 증시는 대공황에 비견되는 폭락장이 연출되었습니다. 2월 하순부터 3월 10일까지 외국인들은 7조원을 순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하였습니다. 연초 경기회복에 따른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계속 유지하면서, 조선 태양광 항공 등 씨클릭업종과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음식료, 미디어 콘텐츠 업체도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은행, 보험은 비중축소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성장성이 크게 부각되며 급등세를 보인 2차전지 관련주는 일부 차익실현 하였으며, 3월 코로나 글로벌확산으로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는 낙폭과대주가 속출하였으며, 이에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경기방어주를 매도하여, 코로나19에도 실적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인터넷 업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대유행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이동제한으로 인한 생산 및 소비 충격의 장기화가 현실화되며, 실물경제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감소에 이어 공급 증가

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신용 경색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 대응 속도와 그 규모도 전례없이 빠르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정부 정책의 강력한 힘”을 통해 위기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한국 기업들의 강한 실적회복을 전망하였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까지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추가하락->반등->기간조정 및 박스권”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치료제 개발이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 수 추이가 시장 방향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반기중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다면, 정책효과와 이연 수요 효과가 맞물리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은 연초와 달리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3월부터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종결 이후에도 많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용에서 온라인 비중의 증가, 가정 간편식과 친환경차의 확산,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지금까지 진행되던 변화들이 더욱 속도감있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IT 기술력의 중요성 역시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즉 IT, 인터넷, 2차전지, 음식료, 미디어콘텐츠, 제약 바이오 등에 대한 비중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유가 하락도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야 할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 움직임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국면에서는 화학, 유틸리티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하므로, 조정 시마다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21.03	-14.77	-18.27	-18.51
(비교지수 대비 성과)	(-1.30)	(-0.27)	(-0.77)	(-1.28)
비교지수(벤치마크)	-19.73	-14.50	-17.50	-17.23

※ 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T-1) X 9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18.51	-29.83	-25.03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28)	(-3.29)	(-7.33)	-
비교지수(벤치마크)	-17.23	-26.54	-17.70	-

※ 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T-1) X 9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전기	0	0	0	288	0	0	0	0	1	-4	285
당기	0	0	0	-760	0	0	0	0	1	-4	-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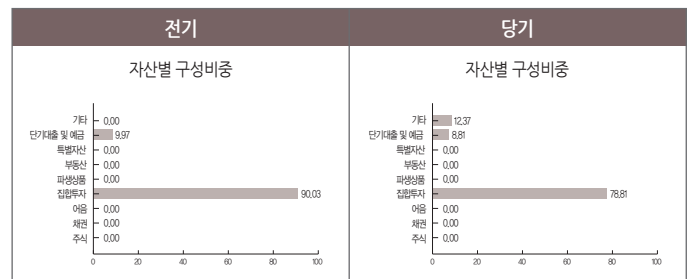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KRW (1.00)	0	0	0	2,407	0	0	0	0	269	378	3,054
합계	0	0	0	2,407	0	0	0	0	269	378	3,054

※ (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한투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CF	78.81	6	
2	기타	한투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회주식CF	12.37	7	
3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8.81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한투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CF	주식형	한국투자신탁운용	3,059	2,407	대한민국	KRW	78.81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6-05-09	269	0.46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1	77	2,276,163	-	-	2119000125
김태현	과장	37	77	2,276,163	-	-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7	2,276,163	-	-	2119000110

※ 성명이 굵게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2018.05.29 ~ 2019.12.06	차인식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4	0.11	4	0.1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4	0.12	4	0.12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674	0	0.4674
당기	0.4687	0	0.4687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사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